불자 세상보기

여성 안전, 가부장적 성의식 혁신부터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

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강력 범죄로 다 수의 여성이 생명을 잃게 되거나 성폭행을 당하여 전국의 여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나라 전체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 여성 살인사건, 수락산 등산로 여성 등산객 살인사건, 그리고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이 바로 그런 사건들이다. 국민, 특히 여성들의 아우성에 정부에서는 나름의 대책들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근본대책이라기보다는 사후약방문격의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다.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나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게 그 대표적이다. CCTV는 하나의 보완책이자 보조장치이지 마치 판도라의 상자 같은 범죄해결의 근본대책은 될 수 없으며,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또한 처벌하지 않거나 미약한 처벌보다야 낫겠지만 이 또한 범죄자 개인에게만 책임이 있고 그래서 범죄자 개인만 비난하겠다는 너무나 쉬운 선택이다. 이런 대책들이 문제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처음부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보다는 사후에 대응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다. 이유는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가 따르고 그 피해는 살인이나 성폭력처럼 때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회복에 시간, 경비, 노력이 많이 들고 회복되더라도 피해 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인도보다 여성대상 범죄율 높아
가부장적 사회 인식이 문제 요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범죄는 더욱 그렇다. 모든 정책의 우선은 예방에 집중되어야 한다. 흔히 범죄학에서는 범죄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게 있다. 당연히 그 조건들이 모두 갖춰져야 범죄가 발생할 수 있지 그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는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범행의 동기를 가진 잠재적 범죄자, 매력적인 표적, 그리고 그 표적이 제대로 보호되거나 감시되지 않을 때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범행동기를 가진 잠재적 범죄자도 늘어나는데 반해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우리 국가나 사회조차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여성들이 매력적인 표적이 되고 있는 처지라는 것이다.

각종 통계에 의하면 주요 강력범죄의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이며, 이 수치는 불행하게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성인권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진 인도, 남아공, 사우디 등에 비해서도 거의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즉,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처지나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한 사회적 분노와 증오라는 범행동기를 방어력이 약하고 보호되지 못하는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표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여기서 말하는 취약성은 여성의 신체적 취약성이다. 이 보다 여성을 범죄에 더 취약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사회적 취약성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다른 사회의 여성에 비해 특히 더 취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한국 여성이 강력범죄의 피해를 더 많이 겪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가부장적 문화와 그로 인한 잘못된 성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우리와 같은 가부장적 사회일수록 여성에 대한 폭력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는 남성의 심리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해답은 있다. 문제가 지나친 가부장적 문화와 그로 인한 잘못된 성의식에 있다면 해결 또한 여기서 찾으면 된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증오와 분노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사회의 의식과 문화는 교육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제대로 된 가정문화와 제대로 된 성의식과 성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교육되어야 한다. 부모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이유이다.

기자 칼럼

사회노동위, 지속적 행보가 큰 울림 준다



박아름
취재부 기자

"죄송합니다"

6월 17일 연건동 서울대병원 후문에 위치한 '백남기 대책위원회 농성장'을 찾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다. 백남기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두 번째 방문이란 것이 그 이유였다. 첫 번째는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평화의 꽃길 기도회'를 개최한 후 백남기 씨 병실을 방문한 때였다.

그간 천주교계는 매일 오후 4시 그 자리서 미사를 열었다. 백 씨가 쓰러진 후 217일(6월 17일 기준) 동안 미사는 쉼 없이 지속됐고, 전국 곳곳에선 천주교 사제와 신도들이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도하는 미사 · 단식기도 등이 이어졌다. 물론 백남기 씨가 천주교였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시민들은 천주교도들의 그 '지속적인' 행보에 박수를 보냈다.

사회노동위가 찾은 이 날도 가톨릭농민회 이순일 씨가 나와 217일 간 경과를 안내했다. 경과보고 순서가 끝나자 스님들과 사회노동위원들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푹푹 찌는 날씨에도 30분 넘게 신묘장구대다라니와 관세음보살 정근 등을 염송하며 백 씨의 쾌유를 기원한 스님들이 무엇이 그토록 죄스러웠을까.

사회노동위는 지난해 말 기존 '노동위원회'서 확대 · 개편된 후,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이 발표되자마자 환영문을 발표하는 동시에, 노동관련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에 일방적 추진을 반대해왔다. 그런가하면 어느 날은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어떤 날은 서울 2호선 구의역을 찾아 스크린 도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 군을 위한 기도회를 봉행했다.

'노동위' 앞에 '사회'란 글자를 더한 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성소수자 문제, 장애인 문제, 인종차별 문제 등 사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불교계를 대표해 나섰다.

문제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단 것이다. '많은' 활동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지속적일 때 큰 울림이 있다. 이런 점에서 그간 사회노동위의 무수한 활동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소문난 잔칫상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물론 종교계는 사회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좁단 한계가 있다. 불교계는 물론이거니와 이웃종교계도 '평화'란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문제에 대한 개선과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과 변화는 '지속적으로' 행할 때 이뤄질 수 있는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다. 투쟁을 하고 싸워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잠깐 들리는 작은 염불 소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줄까. 물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교계가 이런 것을 하는구나'란 인식은 남겨줄 것이다. 그러나 사회노동위는 그러한 보여주기식 행사를 원치는 않았을 것이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노동위 행사에 스님들보다 일반 시민, 이웃종교인들의 모습이 더 많이 보였던 것에 비하면 사회노동위 스님들의 역할은 확실히 독보적이다. 사회에 관심이 많지만 승복을 입고 쉽게 나서지 못했던 스님들이 '조계종 사회노동위'란 이름으로 한 데 모였다.

약자가 고통 받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자리를 펴고 앉아 목탁을 치고, 불경을 외고, 마이크를 잡는 사회노동위 스님들. 스님들은 그냥 길을 지나가던 불자들의 두 손을 모으게 하고, 두 눈을 사회적 약자로 돌리게 하는 힘이 있다. 스님들의 "죄송하다"는 그 말 한마디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그 자비심과 희망을 발견한다.

社說

총무원장 선출제 혁신 미룰 수 없다

염화미소법으로 대표되는 '추첨제'와 함께 '직선제'에 대한 논의도 종단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6월 21일 개최한 제206차 임시회에서 직선제를 논의하기 위한 '총무원장 직선 선출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태관 스님을 선임했다. 총무원장 선출 관련 종헌 개정안과 종법 제정안은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염화미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추천인단 706명이 총무원장 후보 3명을 추천하면 갈마위원회 후보검증과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종정 스님이 추첨하는 제도다.

이 같은 중앙종회의 결정에 따라 대중의 이목은 새롭게 구성된 '총무원장 직선 선출제 특별위원회'에 쏠리게 됐다. 위원 구성과 위원회 활동기간, 예산 규모 등은 의장단에게 위임한 상황이다. 현재 위원은 9~11명 선으로 구성되며, 종회의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까지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결정에는 대중공사와 더불어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한 '직선제' 논의 요구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조계종이 할 일은 대중들이 요구한 '직선제' 법안을 잘 성안하고 차기 종회에서 이월된 '추첨제' 법안과 함께 다루는 일이다.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은 조계종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이다. 염화미소법과 직선제는 각자 마다 장단점이 분명하다. 현재 성안된 염화미소법의 법안은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고, 직선제 역시 선거의 폐단을 완전히 철폐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들 중 종단 행정 역량과 정서에 무엇이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

개발정책에도 '自他不二'가 필요

최근 정부의 잇단 개발정책과 국책사업으로 인해 사찰 수행환경 침해가 심각하다. 근래만 해도 삼척 안정사는 국도38호선 삼척 도계~신기 도로건설공사로 폐사 위기에 내몰렸으며,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주석하는 부산 해운정사는 전통사찰임에도 바로 앞에 초고층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문화재 훼손과 조망권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천년고찰 성남 봉국사는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해 전각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사실 이런 수행환경 침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불교계는 반대 입장을 내기도 하고, 또는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해 도량을 이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사업을 실시하는 주체는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게는 소음부터 크게는 폐사까지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이나 문제해결이 이뤄졌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편리성을 위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로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당사자의 처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물론 법적으로 종교시설 보호에 관한 의무가 없고, 일반인들에게 이를 강요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종교인들이 국책사업의 당위성을 이해하는 만큼 사업주체 역시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강조하는 '자타불이(自他不二)' 정신이 필요한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 1644 - 9108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